

# 발 막히면 머리로 쏜다... 손흥민, EPL 득점 단독 선두



“내가 제일 잘나가” 토틀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27일(한국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버리와 2020-2021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헤딩으로 결승 골을 터뜨리고 세리머니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틀넘-버리전 선발 출전 리그 8호골로 4경기 연속 득점 유럽 1부리그 8시즌 두자릿수 득점... 팀 1-0 승리 견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틀넘)이 9개월 만에 발이 아닌 머리로 해결사 본능을 뽐냈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버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버리와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원정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31분 ‘단짜’ 헤딩 케인의 헤딩 패스를 받아 헤딩 결승 골을 터뜨려 토틀넘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9경기(정규 리그 6경기 8골·유로파리그 3경기 2골)에서 10골을 작성하며 5시즌(2016-2017시즌 21골·2017-2018시즌 18골·2018-2019시즌 20골·2019-2020시즌 18골·2020-2021시즌 10골)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월드컵 클래스 공격수임으로 스스로 증명했다.

더불어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2012-2013시즌·12골), 레버쿠젠(2013-2014시즌 12골·2014-2015시즌 17골)에서의 성적을 합치면 손흥민은 유럽 1부 리그 무대에서 11시즌을 뛰는 동안 8시즌이나 두 자릿수 득점을 작성했다.

이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시절 기록한 7시즌(1979-1980시즌·1985-1986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EPL 무대에서 8호 골을 터뜨려 득점 공명 선두였던 도미니 캄버트-르윈(에버턴·7골)을 따돌리고 당당히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토틀넘에서도 케인(5골)을 3골이나 앞서며 팀 내 득점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이날 2열 수비라인을 앞세운 버리의 ‘늑 축구’에 고전했다.

하지만 ‘발’이 막힌 손흥민은 ‘머리’를 썼다. 손흥민은 후반 31분 에리크 라멜라의 오른쪽 코너



킵 상황에서 케인이 머리로 밀어준 볼을 골 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결승 골을 뽑아냈고, 손흥민의 헤딩 골은 결승 골이 돼 토틀넘에 1-0 승리를 선물했다.

손흥민의 헤딩골은 귀한 장면이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터트린 헤딩골은 지금까지 4차례에 불과하다.

2015년 토틀넘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이번 버리전까지 EPL 166경기에서 61골을 기록했는데 헤딩골은 4개였다.

손흥민은 2017년 12월 14일 펼쳐진 브라이턴 호브 앨비언과 2017-2018 EPL 17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42분 헤딩으로 추가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의 EPL 무대 첫 헤딩 득점이었다.

그는 2018년 3월 4일 허더즈필드와 2017-2018 EPL 29라운드에서는 왼발로 결승골을 터뜨리고 헤딩으로 추가 골을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한동안 ‘머리’를 쉬었던 손흥민은 올해 1월 23일 노리치시티와 2019-2020 EPL 24라운드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34분 헤딩으로 결승 골을 터트리며 팬들을 즐겁게 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오늘 손흥민은 자신의 세 번째 헤딩 득점과 비슷한 시간대에 머리로 결승 골을 꽂아 자신의 EPL 통산 4번째 헤딩 득점을 완성했다. 올해 두 번째 헤딩골이었다. /연합뉴스

## 양현종, 정녕 내일이 마지막은 아니겠지요?

내일 두산전 시즌 마지막 등판 FA 종료 후 미국 진출 계획 “팬들 앞 ‘유종의 미’ 거둘 것” 각오

KIA 양현종이 안방에서 ‘고별전’이 될 수 있는 2020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임기영은 시즌 최종전에서 10승 도전 무대를 갖는다.

KIA는 27일 KT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한주’를 시작했다.

28일 KT와 다시 만나는 KIA는 29일 두산과 홈에서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그리고 30일에는 올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를 위해 시작으로 간다.

지난 21일 NC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KIA의 시즌 종료가 하루 미뤄졌다. KIA는 31일 NC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2020시즌 대장정을 끝낸다.

장현식으로 스타트를 끊은 마운드에서는 김현수-양현종-가능-임기영이 순서대로 등판한다.

장현식에 이어 김현수가 선발테스트를 받게 되는 상황, 양현종과 가능은 등판 순서를 바꿨다.

윌리엄스 감독은 27일 “선수를 개인별로 이야기



했고 선수들이 원하는 경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절했다”며 “이틀 동안 로테이션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양현종과 가능 순서로 등판을 계획했다”고 언급했다.

양현종이 미국 도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안방 마운드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양현종의 시즌 마지막 등판은 그래서 ‘홀’에 맞춰 준비됐다. 양현종은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임기영의 추가 등판도 확정됐다. 올 시즌 윌리엄스 감독은 4·5선발 임기영과 이민우의 ‘이닝’에 신경 쓰면서 마운드를 운영했다.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기영은 지난 25일 삼성전 6.1이닝 1실점 피칭을 통해 자신의 최다승과 최다이닝 기록을 각각 9승, 121.1이닝으로 연장했다.

이닝은 시즌 초 계획했던 목표지점을 넘어선 기록이다. 하지만 선발에게 ‘10승’은 의미가 많은 기록이다. 또 최근 페이스도 좋은 만큼 시즌 최종전에 임기영의 등판이 점쳐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준비가 되어있다”며 임기영의 최종전 출격을 확정했다.

그는 “임기영과 등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다. 정해놓은 목표 이닝이 넘었지만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던지고 싶어했다”며 “최근 등판에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경기를 했다. 토요일에 던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아기 호랑이 11명 내일 팬들과 첫 만남

두산전 앞 시구·시포 행사

2021시즌 프로에 뛰어드는 ‘아기 호랑이’들이 29일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29일 KIA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신인 선수들이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이리(광주일고), 박건우(고려대), 장민기(마산 용마고) 등 신인 선수 11명은 KIA 유니폼을 입고 내년 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고 시구·시포 행사에 나선다.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이 시포자로 나서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알린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기자자동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신인 선수 입단식이 진행된다. 이날 입단식에는 이화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2021년 신인 선수들의 입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입단식은 신인 11명에 대한 소개와 유니폼 착용식,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신인 선수들은 입단식이 끝난 뒤 경기장으로 이동해 윌리엄스 감독, 코치진과 상견례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경험, KT 좋은 성적 발판”

이강철 감독 재계약 선물 안고 광주 방문...조범현 전 감독·팬들에 감사 인사

KT 이강철 감독이 재계약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왔다.

이 감독은 “선수를 덕분이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전체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했다”고 웃었다.

KBO의 ‘막내’ KT위즈의 창단 첫 포스트 진출을 이끈 이 감독은 지난 26일 구단과 3년 재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의 ‘우승감독급’ 대우다.

이 감독은 기본 좋은 소식과 함께 친정 KIA와의 경기를 위해 27일 고향으로 왔다.

이 감독은 경기 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재계약 전에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나니까 새로운 부담이 된다”며 “4경기 집중하고 시즌 끝나고 다음 주장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전임 조범현, 김진욱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이 감독은 “두 분에게 감사하다. 팀을 잘 가꿔주셔서 팀이 어느 정도 성장된 상황에서 내가 와서 덕을 많이 본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수들이 잘했고 팬 여러분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도움 주셨기 때문에 좋은 재계약 선물을 받았다. 더 좋은 팀 만들라고 대우도 잘해주신 것 같다. 책임감도 따르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많은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역시 가장 고마운 이들은 선수들이다.

그는 “재계약을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5할 때가 잊고 갈고, 올해도 -9까지 갔을 때가 생각났다”며 “오기가 생겼다. 어떻게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잘했다”고 말했다.

또 “아내와 아이, 가족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했다.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선수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웃음). 선수들 덕분에 재계약하게 돼서 고맙다”고 말했다.

재계약에 대한 기쁨 속에서도 끝까지 않은 2위 싸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이 감독.

이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마지막에도 내일 경기에 집중하자고 했다(웃음)”며 “전경기 이긴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